부처님 닦아 번뇌를 날리다

日 토다이지, 대불 대청소 '오미 누구이' 회향

박영빈 객원기자

고대 일본불교의 중요한 도량이자, 대불로 유명한 나라현의 토다이지(東大寺)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8월 7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언론들은 토다이지에서 대불을 깨끗이 청소하는 '오미 누구이(お身拭い)'가 봉행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토다이지 대불전(大佛殿)에 모셔진 본존 '토다이지 노사나불 좌상'은 752년에 조성됐다. 몇 차례의 병화를 겪으며 꾸준히 보수됐으나, 일본 최초 대불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좌대를 포함해 18m 높이의 이 청동대불은 일본의 국보이자 일본불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최초 조성 시 한반도에서 온 장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불에 1년간 쌓인 먼지를 털고 닦으며, 대불전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행사가 바로 '오미 누구이'다. 본래 오미 누구이는 동대사 주지들의 각 임기 중에 단 한 번씩만 봉행되던 행사였으나 1964년부터 매년 8월 7일에 봉행, 매회 120~150여명 정도의 사부대중이 참석한다.

토다이지 측은 "본래 회랑과 중문 등에는 모래가 깔려있어 청소하기 매우 어려워 횟수가 제한 됐지만, 돌로 길을 포장한 이후론 매년 봉행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오미 누구이는 나라의 여름 풍경으로, 일부러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있다.

올해는 180여 명의 사부대중이 오미 누구이를 위해 모였다. 대중은 이른 아침에 대불전에서 떨어진 욕실서 목욕재계한 후 흰 옷과 짚신을 신고 대불전에

752년 조성된 노사나불좌상
매년 8월 7일 대중과 청소해
이 모습 보러 참배객도 방문
"마음속 먼지도 씻어내는 기분"

들어섰다. 대중의 손엔 제각각 빗자루나 먼지떨이가 들렸다.

오전 7시, 법주스님의 인도로 발견식(撥遣式)이 봉행됐다. 청소를 위해선 불상 위로 기어오르거나, 발로 불상을 디디는 악업을 지을 수 있기에 점안의 반대인 발견의식을 통해 불상을 보통의 조각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발견식을 종료하자 대중이 일사불란하게 대불을 향해 움직였다.

불상의 머리를 청소하는 이들은 대불의 등에 난 구멍을 통해 머리위로 올라가고, 얼굴과 가슴을 청소하는 이들은 천장에 매달린 3개의 바구니를 타고 청소를 시작했다. 다른 대중도 각각 손과 무릎, 연화대 등 자신이 담당한 부분들을 청소했다. 이외에도 협시 보살상과 대불전을 둘러싼 회랑, 중문(中門) 등도 청소가 이뤄졌다.


1년간 대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토다이지 대중, 높이 18m의 대불 청소에는 많은 인력과 각종 도구가 활용된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대중스님의 독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된 오미 누구이는 약 3시간의 노력 끝에 마무리됐다. 청소가 끝나자 다시 법주스님은 대불을 점안하고, 노사나불 좌상은 다시 1년간 불자들을 맞이하는 자비로운 부처님으로 자리 잡았다.

토다이지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가와 후몬 스님은 "불상에 먼지가 끼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번뇌의 먼지가 낀다. 오미 누구이를 계기로 항상 자기 자신의 먼지를 털어내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대불의 왼손 청소를 담당한 모리야마 노리카츠 씨는 "오미 누구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귀중한 행사다. 부처님을 닦으며 나 자신도 1년간의 먼지가 떨어진 듯한 기분"이라고 감상을 전했다. 또 올해 처음 참가했다는 나카모토 마사히로 씨는 "대불을 이렇게 가까이 직접 느끼면서 엄청난 박력을 느꼈다. 앞으로 1년간 새로운 기분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에 水中 사원 드러나

10년 만 최악의 가뭄 계속돼
롭부리 지역 댐 수면 낮아져

댐 건설 후 장기간 물속에 잠겨있던 태국의 불교 사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름 아닌 가뭄 때문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골머리를 앓던 태국 국민들에게 사원의 등장은 '단비'와 같은 상황.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인디아타임즈(Indiatimes) 등 외신은 8월 20일(현지시간) 20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태국 롭부리(Lopburi) 지역의 왓 농 부아 야이(Wat Nong Bua Yai) 사원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간 가뭄 끝에 4m 높이의 불상 및 옛 사찰의 구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댐 수면이 낮아진 상태다. 주변이 죽은 물고기와 쓰레기


20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태국 롭부리(Lopburi) 지역 사원이 극심한 가뭄으로 자취를 드러냈다. 사진출처=atlasobscura.com


수면 위로 드러난 사원의 불상을 참배하기 위해 많은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들로 난잡한 가운데서도, 불두가 손실된 해당 불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다른 지역의 스님들도 이 불상에 참배하기 위해 찾고 있다고 한다.

과거 해당 사원은 700여 채 집들이 몰려있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불교의식 및 축제를 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기도 했다. 또 넓은 놀이터와 오락공간도 마련돼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사원의 등장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몬순(monsoon) 기간 동안 강수량이 극도로 적어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해당 댐은 9억6000만㎥ 규모로, 이 댐의 물은 태국 4개 지역 약 130만 에이커 농지에 공급된다. 현재 가뭄으로 인해 3000에이커, 즉 430분의1 정도의 물만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축제서 코끼리 학대 논란

스리랑카 사리이운 축제서 병든 코끼리 쓰러져

불교에서는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풀 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불교축제를 위해 나이든 코끼리를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8월 17일 미국의 'CNN'과 프랑스의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스리랑카의 캔디시에서는 지난주, 연례 불교축제인 '에살라 페라헤라(Esala Perahera)'가 봉행됐다. 이 축제는 캔디시의 불치사(佛齒寺)에 봉안된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코끼리 등에 싣고 시가지를 행진하는 행사로 대미를 장식한다. 그런데 이 축제에 동원된 코끼리 중 노령의 코끼리가 무리하게 끌려 나와, 행사 후 쓰러진 것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발생했다.

태국에 기반을 둔 코끼리 보호단체 '코끼리의 소리를 듣는 이들(Elephant Whisperer)'은 페이스북을 통해 "70세에 가까운 암컷 코끼리 '티키리'가 지난 에살라 페라헤라 축제에 동원됐다가 쓰러졌다"고 전했다. 티키리는 노령에 병이 들어 장기간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윈 상태임에도 무거운 장식 옷을 입은 채로 행사에 매일 밤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명과 폭죽, 크게 울리는 음악 역시 병든 코끼리들에겐 큰 스트


축제에 혹사당한 코끼리의 모습, 제대로 먹지 못해 뼈가 앙상하다. 사진출처=CNN

레스라고 알려졌다. 보호단체는 "그 누구도 앙상히 여윈 티키리의 몸을 알지 못했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알아차리지 않았다"며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티키리의 소유주는 "전통적으로 병든 코끼리를 축제에 참가시키면, 부처님 가피로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다"며 코끼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치사에 부탁해 출연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축제 운영위는 14일 밤 마지막 대행진에서 티키리의 출연을 금지했다. 또한 존 아마라툰가 스리랑카 관광개발국 장관은 16일, 관계기관에 조사를 명령했다. 아마라툰가 장관은 "무리하게 동원되거나 축제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코끼리들이 있는지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축제에 동원된 코끼리는 약 200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로봇 도입… 대중 반응 각양각색

신도들 반응 열광적, 서양 관광객은 거부감 나타내

일본불교의 '로봇 승려'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일본 불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서양 관광객들은 전통적이지 못한 모습에 다소 실망스러운 기색이다.

과학 전문지 라이브사이언스(Livescience)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교토에 위치한 코다이지 사원의 '로봇 승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사원은 올해 초부터 불서 및 불경 등을 낭독하는 로봇사원을 도입했다.

라이브사이언스는 "로봇 승려는 영화 '터미네이터' 속 등장인물인 T-800처럼 금속 부품의 본체와 유연한 실리콘 얼굴, 손 및 어깨가 결합된 형태"라며 "자비를 구현하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로봇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봇 승려가 도입된 후 신도들의 반응은 열광적이다. 한 신도는 "일본인들은 로봇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로봇이 등장하는 만화를 가까이 접했다"고 했다. 일본불교계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펩퍼(Pepper)'라는 로봇 승려를 불교식 장례의식에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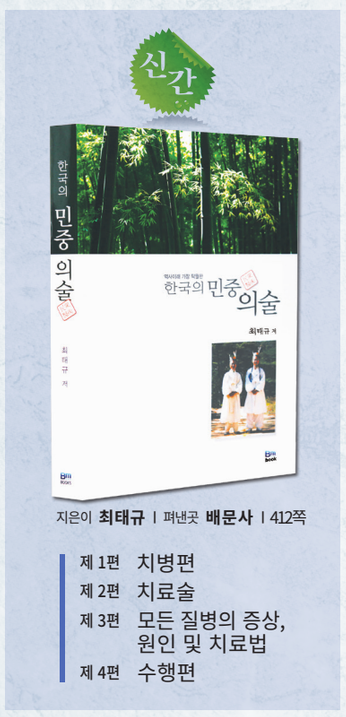
다만 일부 서양 관광객들은 거부감을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게 라이브사이언스의 설명이다.

해당 사원의 주지 텐쇼 고토(Tensho Goto) 스님은 "로봇 승려는 결코 죽지 않는다.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라며 "불교의 지식을 영원히, 그리고 무제한으로 저장해 후대에 전파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은 "물론 기계에는 영혼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저 부처의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상이 철 조각, 나무 등 어떤 것으로 제작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